

# 진정한 씨앗이 되어라. 그리하여 꽃을 피워내라

이상각/시인

**모** 든 존재의 삶은 이미 고정되어 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살아가다 죽어간다. 소나무는 소나무로 장미는 장미로 살다가 시들어간다. 하지만 인간만은 예외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성과 자유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숭고함이며 영광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인간이 굴욕과 비천의 나라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동물 이하로 전락할 수도 있고 위대한 신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그 방법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잠재성을 발휘하는 것, 그 궁극적인 상태인 깨달음으로만 가능하다.

-종략-

그대는 단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다. 그 씨앗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가능성을 갖는다.

첫째, 씨앗은 영원히 씨앗으로 남을 수 있다. 그는 아무런 시도도 없이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

그는 아직 땅과 하늘, 공기, 바람, 태양 별들과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재 죽은 씨앗이다.

그대의 잠재성은 숨을 쉬지 않는다.

둘째, 씨앗이 용기를 내어 흙 속으로 파고든다. 드디어 그는 껍질을 벗고 대지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어떤 윤회를 향할 것인지 아무런 확신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직 서투른 용기에 불과하다. 껍질을 벗은 씨앗은 너무나 여러고 부드럽다. 그런 만큼 어린 싹은 항상 위협에 노

출된다. 하나의 시도, 그것이 두 번째 가능성이다.

셋째, 많은 싹들이 새들에게 쪼이고 폭풍우에 쓰러지고 극소수의 씨앗만이 꽃을 피우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탐욕과 인색함을 버리고 존재계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는다.

그리하여 자연과 교감하면서 온갖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사랑을 떠나간다. 그것은 자신에게 베푼 존재의 이유를 근원에게 거꾸로 돌려주는 일이다. 그때 나무는 비로소 꽃을 피운다.

넷째, 꽃이 향기를 내뿜는 단계이다. 꽃은 여전히 거칠고 물질적이다. 하지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냄새로 느낄 수 있다. 이 향기의 너머에는 아무 것도 없다. 향기는 우주 속으로 사라져 우주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그대 앞에 주어진 네 단계이다. 씨앗에 머물지 말라. 나무로 머물지 말라. 꽃으로 머물지 말라. 그대는 하나의 향기가 될 수 있다.

향기가 발산되지 않는 한 그대는 자유롭지 못하다. 구속에서 벗어나라. 그대는 아직 작은 몸 속에 갇혀있다.

자아, 분노, 탐욕, 질투, 소유욕 등 모든 무거운 것들이 그대를 감옥처럼 튼튼하게 윽죄고 있다.

그대는 욕정 없는 사랑을 모른다. 그대는 아무 제한이 없는 상태를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조악한 율법에 묶여 계속 추락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대는 위로 올라가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대여. 상승하라. 머물지 말라.

-“인연을 비껴 가지 마라” 중에서-

